

선천성 심장병을 극복한

학교에서 실시한

우리는 흔히 “살아있음”에 대한 가치를 망각한 채 그날그날을 보내 버리고, 어느날 갑자기 우리 앞에 닥친 “건강에 대한 위협”이라는 놈 때문에 당황하며 또 더러는 좌절하게 된다.

심한 경우, 우리의 의지 따위(?)와는 관계없이 생명은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만다. 불가항력의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개는 시기를 놓쳐버리는 때가 허다하므로 뒤늦게 후회해 보았댔자 무슨 소용이 있으랴.

심장병



북지부 문창수씨와 이야기하는 강은정양



건강한 생활을 하고있는 강은정양

어린소녀, 강은영양의 병상이야기

심전도 검사에서 조기발견 됐다.

어린이 심장병 집단검사만 해도 그렇다. 필요한 일이라는 것은 알지만 실천으로 옮겨지는 예는 드물다.

여기 선천성 심장병의 일종인 “동맥관개존증(動脈管開存症)”이라는 병을 앓고있다가 학교에서 실시한 심전도 집단검사에서 조기발견하여 시기적절하게 치료를 끝내었고,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미래를 향해 달음박질하는 한소녀를 소개한다. 혹시라도 건강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그 귀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평범한 국민학교 소녀인 강은영양

강은영양(12. 학생. 경북 울진군 울진읍 내1리). 그녀는 평소 쾌활한 성격에 체육, 특히 달리기를 좋아하는 지극히 평범한 국민학교 소녀였다. 스스로건 주위에서건 “건강전선, 이상없음”을 자부했던 그녀! 덕분에 10살이 되던 '85년이 되기까지 병원 문턱도 구경해 보지 않았단다.

그러던 그녀가 동맥관개존증상의 일종이기도 한 “호흡기감염”을 앓게 된 것은 '85년 10월의 일이었다. 물론 그때 심장병일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한다.

우스운 얘기로 밖에 인들리는 선천성 심장병

『자꾸 목에서 가래가 끓고, 호흡기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았어요. 처음엔 목감기 정도로 생각해서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다 먹였지요. 그래도 나아지는 기미가 안보여 군립병원을 찾아갔습니다.』은영양의 어머니 임복순씨(35)의 말이다.

『그런데 엄청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것 같으니 큰 병원에 가보라는……. 우스운 얘기로 밖에 안들렸어요.』

그때까지 그녀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달리는 커닝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하는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은영이는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만큼 건강했고 또 체육을 무척이나 좋아했으니, 목이 좀 아프다는 것만을 가지고 어떻게 심장병이라 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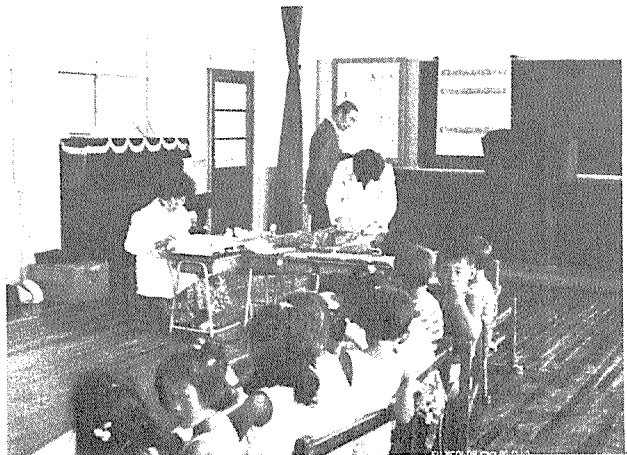
그녀의 그런 생각을 부채질한 것은 계속되는 목의 아픔 때문에 찾아간 월변의 모 소아과 병원의 검사결과였다. 심한 감기 증상일 뿐이니 잘 요양하라는 것 외에 은영양의 신체에서 발견된 이상은 아무 것도 없었다.

학교에서 실시한 심장병 집단검사에서 —

같은 해 11월 말쯤의 일이었다.

은영양은 학교에서 어린이 심장병 집단검사를 실시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에서 직접 학교로 와서 희망자에 한해 심전도 검사를 해준다더라고 은영이가 얘기하더군요.』 어머니 임복순씨의 얘기.



어머니 임복순씨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에서 직접
학교로 와서 희망자에
한해 심전도 검사를
해준다더라고 은영이가
얘기하더군요.

심형수 경북지부 사무국장은

『87년도엔 경북도내의 모든 국민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심장병집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말한다



『전에 군립병원에서 들은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서 엄마한테 심전도 검사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은영양은 12살나이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어른스런 표정으로 자신이 심전도 검사를 받게 된 경위를 이렇게 설명한다.

『경상북도 내에 있는 모든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심전도 집단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대부분의 국민학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올해는 이미 실시한 학교의 정기검사 유도뿐만이 아니라, 아직 실시하지 않은 학교를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북지부 사업추진요원 문창수씨는 은영양의 옆에서 그녀의 얘기를 보충설명해 주었다.

심장병을 앓고 있으니 종합병원을 찾아가세요.

『경제적 부담도 별로 없고 또 아무리 믿을 수 없는 결과였다 하더라도 군립병원에서의 결과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임복순씨는, 그러나 심장병이란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받은 검사의 결과는 은영양의 가족을 혼란스럽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심장병을 앓고 있으니 즉시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전교에서 우리 은영이 혼자였구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도무지 어디의 말을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사실 믿고 싶지도 않은 심정이었어요. 여러명이 함께 받은 검사니까 잘못된 것일거라고 생각했지요.』 어머니 임복순씨는 당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다.

학교수업을 빠질 수도 없었고, 은영양의 아버지 강상희씨(40세)도 오진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심각한 상태는 시간이 흐르는 대로 방치되었다.

그러나 세상의 어느 부모가 설사 오진이라 하더라도 자식의 건강에 대한 좋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그냥 넘겨버리랴.

지난 해 1월의 어느날, 은영양의 부모들은 그녀를 경북의대 소아과로 데리고 갔다.

선천성심장병의 일종인 “동맥관개존증”이라는 병명

운명의 시간은 그렇게 다가왔다.

『검사의 결과는 선천성심장병의 일종인 “동맥관개존증”이라고 하더군요. 그때사 비로소 모든 검사결과를 믿게 되었고 앞이 깜깜해짐을 느꼈어요.』 임복순씨는 상기된 얼굴로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자궁내에서는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로부터 피를 공급받게 되는데, 태중에서 피를 공급받기위해 대동맥과 폐동맥 사이의 혈관이 열려있습니다. 이 혈관은 보통 생후 1개월이나 6개월 내에 대부분 자연적으로 폐쇄됩니다. 그런데 이때, 폐동맥 사이의 혈관이 막히지 않은 채 성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동맥관개존증이라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발육도 정상이고 아무 증상없이 성장을 하는 때도 있고 어릴 때부터 심한 호흡곤란을 느끼는 때도 있습니다.』

어릴 때 발견하면 100%완치가능

『동맥관개존증은 조기에 특히 어릴때 발견되었을 경우는 수술로 100%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상이 가벼웠다 하더라도 그대로 방치해 두면 반복되는 혈류의 이상으로 감기, 기도감염 같은 호흡기능이상, 권태감을 느끼게 되고 더 심하게 되면 폐고혈압이 합병되거나 세균성심내막염을 앓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술도 불가능해지지요.』 당시 은영양의 수술을

집도했던 金圭太(경북의대 부속병원 흉부외과장) 씨의 동맥관개존증에 대한 설명이다. 그는 말을 잇는다.

『우리 은영양의 경우는 호흡기감염증상을 느끼는 정도였지만, 다행히 빨리 발견되었고,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동맥관을 폐쇄시키는 간단한 수술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지요. 아주 다행한 일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학교공부도 전폐하고 수술실에 들어간 은영양

『수술을 빨리 하면 할 수록 좋다는 얘기를 듣고, 학교공부도 전폐하고 3월에 입원해서 4월초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우선 살고 봐야 한다는 생각 뿐이었어요.』 100% 완치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긴 했지만 수술에 들어가기 전 각서를 쓸 때는 거의 절망적이기 까지 했다고 어머니 임복순씨는 얘기한다.

『수술도 성공이었고, 보험혜택을 받은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크게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다.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그저 감사하다는 생각이 벽차올랐습니다.』 임복순씨는 벽차오르는 감격을, 그러나 차분한 어조로 얘기했다.

모든 병은 어렸을때부터 검사와 예방을 —.

『우리 은영이는 이제 모든 생활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겪은 일을 계기로 깊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장병뿐만 아니라 모든 병은 어렸을 때부터 검사와 예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은영이가 받았던 심장병 집단검사가 더욱 확대되었으면 하구요.』 은영이의 경우가 건강을 뒷전으로 밀어붙여 놓은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임복순씨의 말에 기자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달리기를 제일 좋아하는 은영이

— 은영이, 지금 기분이 어때?

『아주 좋아요.』

- 무슨 과목을 제일 좋아하니?

『체육이요. 그리고 탄 것보다 달리기를 제일 좋아해요. 아프기 전에 보다 훨씬 오래 달릴 수 있어요.』

- 이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간호원이요. 간호원이 되어서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의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은영양은 수줍은 듯한 표정으로 그러나 똑똑한 어조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 그녀의 그런 모습 속에서 기자는 건강의 내음을 물론 느낄 수가 있었다.

도내 모든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심장병집단검사

『87년도엔 경북도내의 모든 국민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심장병 집단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영양과 같은 경우에 처해 있는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올해는 또 벽지의 주부를 대상으로 자궁암 검사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심형수 경북지부 사무국장의 얘기다.

그는 이어서 『경북의 넓은 지역을 모두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하려면 힘도 들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는 하지만 어떤 일이든지 소홀히 함이 없이 책임질 수 있는 검사업무를 해야겠어요. 아무리 좋은 일도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겠죠. 우리의 일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한마디가 우리의 열마디보다 가치가 있겠지요.』 라면서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정확성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의 이 의지에 찬 어조에서 경북도내 모든 사람들의 보장된 건강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

겨울은 멀리 떠나가기 시작했고, 어느새 따사롭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햇살이 싱그러운 어느 오후 울진을 떠나오는 기자는 동생 은하(10. 학생) 양과 줄넘기를 하며 밝은 웃음을 퍼뜨리던 은영양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제 나라의 희망인 어린이를 위한 건강검사가 정착되었으면 하고 빌어 보았다. (이 은희 글)